

불교문학·영상 '결합코드' 무엇?



2007만해축전에서 불교문학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다양하게 개최된 가운데 불교문학과 영상문화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 새롭게 시도되는 길을 열었다.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가) 8월 12일 만해마을 강당에서 개최한 '불교문학 영상문화'를 주제로 한 불교문학 심포지엄에서 <만다라> <동승> <오세암> 등 세 소설과 그것을 영상화 한 영화들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한명환 홍익대 강사는 '한국 불교소설과 영화, 그 '색깔'의 변천사-50년대 이후 영화에 나타난 부처 이미지를 중심으로'란 주제 발표를 통해 "불교 대중소설은 '원효대사' '사명대사' 등 대개 원형 높은 비구 스님들의 이야기에 집착해 왔다"며 "영화

현대불교문인협회 만해축전서 심포지엄 '만다라' '오세암' 등 학술적 접근 '신선'

도 이런 추세였지만 90년대 초에 들어와 최근에 이르기까지 비구니와 동자승 이야기 등으로 다양하게 변천해 왔으며 이는 시대적인 문화 환경의 변화와 관계 지어 설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교수는 "앞으로의 영화에서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비구니들의 진솔한 보살행과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갖고 무미건조한 매트릭스 시대의 유희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라며 "한 발 더 나아가 영화 '불 여를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서처럼 버림받고 있는 작은 동물들, 또한 몸을 버려 부처가 된 물고기, 개구리, 꽃 외의 소탈한 스님의 성불 얘기 등도 얼마든지 영화와 소설의 주제가 될 수 있어야 불교 영화가 다양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제를 제시했다.

송희복 전주교대 교수는 "입권택의 영화 '만다라'에서는 만다라의

시각적인 재현을 만다라라는 상징성보다 사람관계에서 기인한 구체적인 삶의 진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이는 소설 <만다라>속에 나타난 종교적인 수행과정을 통해 영화인으로서 점진적인 자기 수행의 과정과 영화의 미학을 실현해 가는 자기완성으로의 길에 비추보려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만수 인하대 교수도 "영화가 원작 회곡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으며, 원작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오히려 영화로서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며 "문학작품의 영화화 대부분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경중의 영화 '동승'이 함석덕의 회곡 '동승'과 다르다는 점은 그리 닦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예술성과 흥행성을 가진 영화로서 얼마나 성공했고 회곡과는 어떻게 다른 영화적 미학을 보여 주

었느냐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주경중의 영화 '동승'은 원작 회곡에 비해 약간의 과장과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불교적인 공사상을 잘 표현해 우리를 넉넉한 산책의 사유로 잘 이끌어 주었다"고 칭찬했다.

배봉기 광주대 교수는 동화 <오세암>과 애니메이션 '오세암'의 비교를 통해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동화 <오세암>의 정서중 특히 멜로적 감성성을 예술적으로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동화는 비록 관념성의 부담은 있더라도, 거지 남매의 비극적 운명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미덕을 보여주는 반면, 애니메이션은 이들의 비극을 개별적 상태의 멜로적 인 감상과 통속으로만 처리하고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배 교수는 또 "동화 <오세암>이 영상 예술인 애니메이션 '오세암'이 되는 과정에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했다면 동화의 장점은 끌어안으면서 부담되는 관념성은 영상 속에 적절하게 녹여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주익 기자 jkim@buddhapia.com

"남북정상회담 환영" 한 목소리

한국불교종단협·불교계 단체 등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비롯해 불교계 각 종단 및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번 남

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해결에 큰 힘을 제공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도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이타회도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불교문화가 남북한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8월 8일 신인 차성수 정외대 시민사회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만나야 가까워진다. 잘 된 일이다"라고 축하했다.

김원우 기자



'일터'로 향한 마음 "나이는 숫자일뿐"

일자리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취업은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관장 고재욱)은 8월 10일 은평고령자취업양성센터 개소식과 함께 복지관 내 강당에서 '어르신 취업 한미당'을 열었다.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여개 업체의 17개 구인업체가 참가해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들의 채용신청을 받았다.

글/사진=백재현 기자

마음 챙김 명상법
선무도
 선호흡/선체조/선요기/선기공/선무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 살피고, 정화하여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무도 서울지인
02)763-2980
 종로·서초·양재·송파·안산

社告

'자비명상 지도자'의 품격 키우세요

현대불교신문사는 나누는 기쁨 공동체와 자비명상 초급지도자 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주 1회 2시간씩 8주

주제	일정	프로그램 주제	내용
불교 상담의 접목	1주	교육 일정에 대한 소개 마음나누기, 자비명상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 자비명상 안내와 실습하기
	2주	명상으로	자기 긍정 명상, 팔 감사 명상
	3주	이어지는 프로그램	구나, 갯지, 감사 명상, 유서 쓰기
자비로운 대화 훈련	4주	대화 훈련 1 -듣기와 반응하기	신도·일반인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 익히기
	5주	대화 훈련 2 -칭찬하기	신도·사찰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칭찬 연습하기
	6주	대화 훈련 3 -공감	타인의 말을 효과적으로 공감하여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7주	신도대화(상담)실습	신도들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 주에 배웠던 기법을 응용해 실습
	8주	정리하는 마당	스님들과 마음 나누고 칭찬 주고받기

● 4박 5일 집중 과정 일정표

	초기 - 과도기 - 작업 - 종결단계				
	시작하는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09:00~12:00(3)	이론 강의와 실습 1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마음 나누기 마무리	
14:30~17:30(3)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19:00~21:00(2)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집단상담	

- 장소 : 법련사(8주교육), 집중수행과정 (장소 일정 추후 공지)
- 기간 : 9월 3일~10월 22일
- 대상 : 스님(15~20명), 재가자(15~20명)
- 일시 : 매주 월요일 스님(오후 2-4시), 재가자(오후 7-9시)
- 접수 방법
- 1단계 : 원서접수(7월 4일~8월 30일)-자기소개서(사진첨부), 수행이력서
*접수는 팩스 또는 이메일 (godory700@hanmail.net)
- 수업료 : 200만원
- 특전 : 나누는 기쁨 공동체회장 인증 명상지도자 초급자격증 부여
- 문의 : TEL. (02)2004-8237, 팩스 : (02)737-0698
- 주최 : 나누는 기쁨 공동체, (주)현대불교신문
- 강사 : 마가 스님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1 팩스 031)387-5409
 휴대폰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株)坪建 이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坪建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坪建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미를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우러 지는 멋있는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construction & design
 PYEONGKEON

(株)坪建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신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